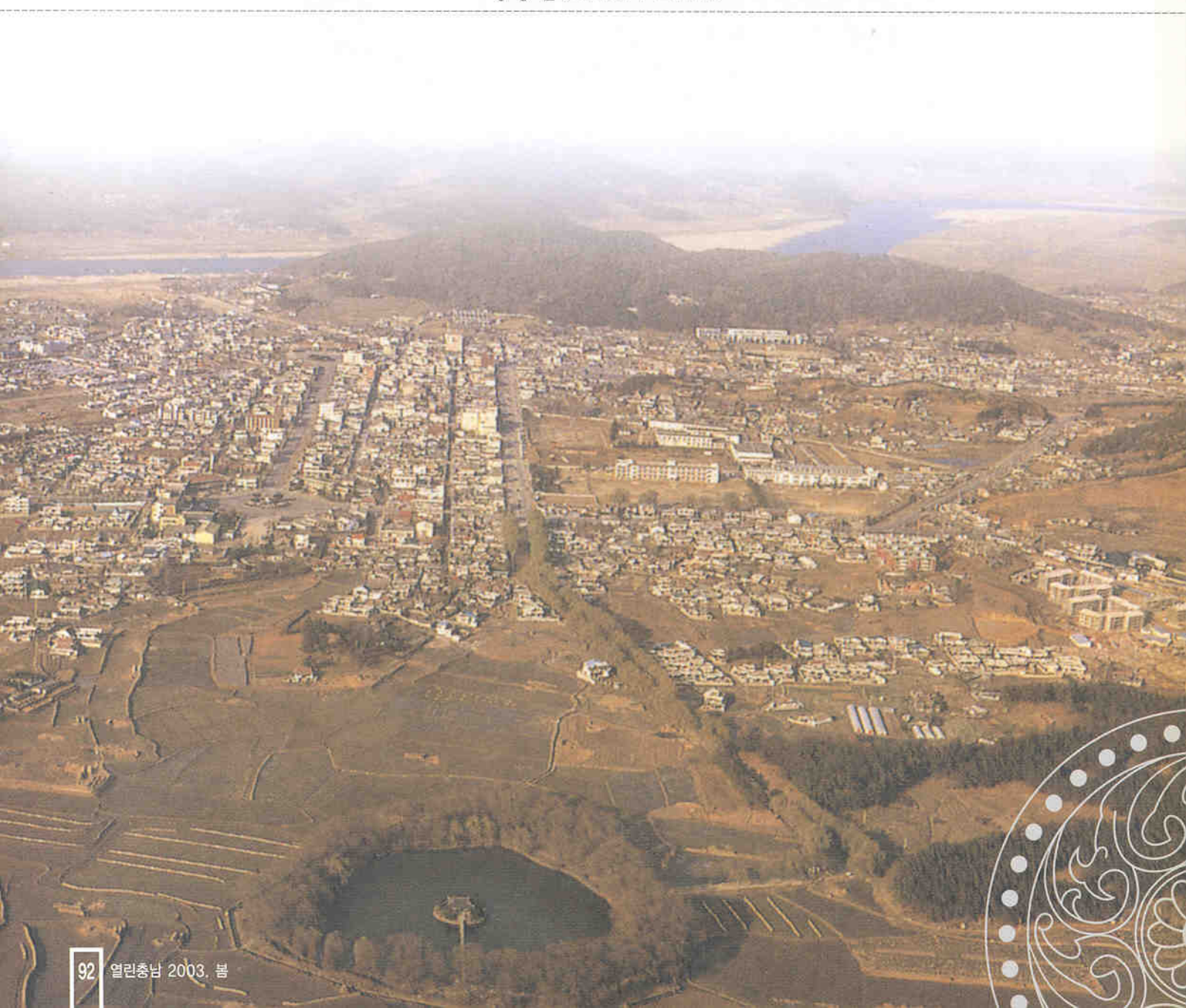


백제문화의 보고(寶庫) 부여

강 종 원 (문화재연구부 연구위원)



땅속에 묻힌 왕도, 부여

백제의 고도(古都) 부여.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산재해 있고 주변 경관마저 빼어나 답사와 관광을 목적인 내방객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 곳이다.

부여를 잘 모르거나, 처음 찾은 사람은 부여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도읍지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름대로 옛 도읍지에 걸맞은 연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색창연하고 웅장한 궁궐, 독특하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가득한 가람, 한번쯤 매만져 볼 수도 있을 법한 각종 유물과 보물들, 아름다우면서도 구슬픈 전설을 담고 있는 유적지들……. 경쾌하고 가벼운 기대감에 차서 곧 눈앞에 펼쳐질 고도를 상상하며 부여로 들어서는 순간, 그러나 기대는 금세 실망과 당혹감으로 변하고 만다. 더욱이 궁궐은 보이지도 않는데 안내자로부터 "당신은 지금 백제 시대 왕도의 중심지, 그것도 왕이 살았던 왕궁지에 와 있습니다."라든가, 현대화된 상가 이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도로 한 쪽에 서서 "이 곳은 백제왕이 군대를 사열하고 각종 의식을 행하던 주작대로입니다."라든가, 이끼 낀 탑만 하나 덩그러니 서 있는 잔디밭에서 "이곳이 국가 사찰인 정림사지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황당함을 느끼며 자신의 귀를 의심하게 된다. 아니면 평소에 익히 들어왔던 왕궁지 또는 정림사지가 다른 어딘가에 번듯하게 있을 것이란 기대를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부여를 돌아보는 동안 기대는 실망을 넘어 안타까움과 처연한 마음으로 변하고 만다. 왜냐하면 상상과 기대했던 바가 어떤 식으로든 실재하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부

여 지역을 처음 답사하는 사람들만의 느낌은 아니다. 모두가 함께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사실이다. 실제로 부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흔적으로만 남아 있는 왕궁터와 5층 석탑만이 쓸쓸히 지키고 있는 사찰터, 그 외 대부분의 다른 유적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렇군. 이게 바로 백제 문화로군." 하는 감탄과 찬사를 자아내게 하는 것들이 있다. 단적인 예로 국보 제287호인 백제금동대향로를 들 수 있다. 천상의 솜씨로 빚은 금동대향로를 보는 동안 처음 부여에 들어서면서 느꼈던 실망감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라지고, 단번에 이승과 선계를 넘나드는 황홀경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그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도 누구 하나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벼를 경작하던 계단식 논바닥의 질척한 진탕 속에서 천오백년 세월을 인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비로소 부여가 감추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 무한한 신비와 경이로운 문화의 위력이 부여 땅 곳곳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부여는 여전히 놀라운 이미지와, 또 상상력보다도 더욱 구체적인 실재성이 혼재된 채로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 사비 도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며 장렬하게 산화한 충신 열사의 뜨거운 외침, 망국의 한이 사무쳐 피울음을 삼키며 당나라로 끌려가는 의자왕, 한숨처럼 가벼운 바람결에도 흩어져 내리는 봄꽃잎처럼 절개를 지키기 위해 절벽 아래 강물로 투신한 삼천궁녀…….

그렇다. 싫든 좋든 간에 부여는 우리로 하여금 망국 백제의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념에 젖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백제가 삼국 가

운데 가장 세련되고 찬란한 문화를 일구어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 선진 문화를 전파하던 나라였다는 점이다.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와 망국의 한이 오랜 시간 동안 교차하면서, 사라졌지만 잊히지 않는 그곳에 바로 부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를 찾는 이들이 먼저 부여가 안고 있는 역사적 양면성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부여를 볼 수는 있어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단순한 눈요깃감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역사 저편으로 영영 사라져버린 것 같은 백제 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암시하고 있는 부여의 속내를 끈기 있게 떠돌 일이다.

고대 문화의 핵이었던 왕도

한 국가의 왕도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함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한 수많은 목적과 의도에 부합해야만 하는 것이다.

조선이 한양을 왕도로 정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풍수지리(風水地理) 상 길지(吉地)였기 때문이었다. 풍수지리사상은 이미 삼국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했고, 백제의 경우에도 무령왕릉이 위치한 송산리왕릉군 역시 풍수지리적으로 대단한 길지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부여가 왕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견해를 제기한 이는 없는 듯하다.

그러면 부여가 123년 간 백제의 왕도였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해답은 백제가 공주에서 부여로 왕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검토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475년(개로왕 21),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성(지금의 서울)이 함락되자 문주왕이 공주로 도읍을 옮김으로써 백제는 웅진 시대를 전개하게 된다. 공주는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하는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서쪽과 북쪽엔 금강이, 또 동쪽과 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수성이 용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이 대외적으로 팽창해 나가는 데는 오히려 결정적으로 불리했고, 더욱이 한 나라의 도읍지로는 전체적으로 지형이 협소했다. 따라서 백제 중흥기를 구가한 무령왕과 성왕 시기를 거치면서 백제는 협소한 공주보다 더 넓은 도읍지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성왕대에 백제는 도읍을 다시 부여로 옮기는데, 이후 부여는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역사의 중심지가 된다.

부여에 관한 기록이 역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웅진시대(475~538) 때의 일로, 도읍지가 되기 전의 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동성왕 12년과 23년에 각각 왕이 수렵하고 성을 쌓았다는 '사비(泗沘)와 '가림(加林)'이란 지명이 바로 부여 지방이다. 또 무령왕대에도 부여에 관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부여가 명실공히 백제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된 것은 역시 왕도가 된 538년(성왕 16)부터이다. 이후 6대, 123년 동안 부여는 백제의 왕도로 번성했는데, 한창때는 가구 수가 13만여 호에 달했을 정도였으며, 이 시기에 삼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화의 꽃을 피웠다. 웅진 시대부터 활기를 보이던 불교 역시 사비 시대에 번성했는데, 현재 부여 지역에 남아 있는 많은 불교 유적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불교 문화와 더불어 조각·건축 등 고대 미술의 발전도 눈부시게 이루어졌고, 발전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신라 같은 주변 국가와 특히 일본에 여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의 발전전략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증거하는 유적들

러 선진 문화를 전수하였다. 황룡사 9층탑을 세운 아버지는 물론이요, 일본에 비조사(飛鳥寺)를 비롯해 많은 사찰을 세운 이들도 바로 백제의 장인들이었다.

이와 같이 백제 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문화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이나 실제로 전해오는 것은 매우 적다. 그러므로 기록으로써 확인되지 않는 역사와 문화는 역사의 현장이었던 부여를 직접 답사해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부여 지역을 답사하려면 바로 이러한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백제 시대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기로 하자. 먼저 부여 지역에 남아 있는 문화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왕궁 관련 유적, 사찰 유적, 관방 유적, 고분 유적, 궁남지 등 기타 유적을 비롯해 각종 설화와 전설 등이 그것이다.

부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유적은 이곳이 왕도였던 만큼 당연히 왕궁과 관련된 유적이다. 왕궁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유력한 장소는 부소산성 남쪽, 곧 현재 부여 문화재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발굴 조사를 통해 건물터와 연못 자리를 비롯해 도로·하수도·석축 시설 등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부여는 엄정(嚴整)하게 조성된 계획 도시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왕궁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증거할만한 기단이나 초석 등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



| 추정왕궁지 출토 사람얼굴무늬토기편 |



| 추정왕궁지 유물출토 모습 |



| 추정왕궁지 발굴조사 모습 |

| 낙화암 전경 |



추정 왕궁지 뒤편에는 배후 산성인 부소산성이 있다. 부소산성은 왕궁을 방어하는 요새일 뿐만 아니라 산과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광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정원 역할을 한다. 부소산성에는 많은 시설이 있는데, 왕실의 기원 사찰이었을 폐사지를 비롯해 사비루, 영일루, 수혈주거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백제가 멸망할 당시 삼천 궁녀가 몸을 던져 절개를 지켰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낙화암이 이곳에 있다. 망국의 한이 얼마만큼 비극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설이 깃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自盡)했던 궁녀들이 시간과 중력을 거슬러 올라 곧 선녀가 되어 노닐다해도 제격일 만큼 절경이다. 낙화암에 앉아서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들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부소산성 전경 |





| 정림사지 전경 |



| '정림사' 명 기와 |

부소산을 내려와 남쪽으로 나 있는 중심 도로를 따라 가면 정림사지에 닿게 된다. 부여에서 고도(古都)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림사지다. 사적 제301호인 정림사지는 왕도의 중심 도로와 인접해 있어 당시 가장 중요한 국가 사찰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람의 구조는 남에서부터 중문·석탑·금당·강당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주위는 회랑으로 구획된 1탑1금당

식이다. 해방 전에 실시한 발굴 조사 과정에서 '정림사'라는 명문이 있는 고려 시대(고려 현종 19년, 1028) 기와가 출토됨으로 해서 이 절터가 정림사로 불리게 되었다. 정림사지에는 5층 석탑과 좌불이 남아 있다. 석탑은 목조건축의 양식으로 조성한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조형물이며, 고려 시대에 조성한 불상은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으로 전한다. 석탑에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사비도성을 함락시킨 후 자신의 공적을 1층 몸돌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평제비(平濟碑)'로도 불렸는데, 패망한 국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찾는 이로 하여금 울분을 자아내게 한다.

부여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 능산리왕릉군이 있는데, 왕릉군과 나성 사이로 보이는 곳이 능산리사지다. 이 절터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금동대향로와 창왕명사리감, 각종 목간 등 백제사의 많은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되었다. 이 지역은 발굴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논이었다.



| 정림사지 5층 석탑 |



| 능산리사지 발굴전경 |

이곳에 왕릉군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 공사하던 중 예기치 않은 놀라운 유물을 발견한 것이다. 논 한가운데서 백제 금속 공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금동대향로를 비롯해 능사(陵寺)의 창건 시기와 주체를 알 수 있는 창왕명사리감이 출토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 감추고 있는 놀라운 비밀과 진실을 언제 어느 곳에서든 드러낼 수 있다는 필연성과 의외성이야말로 왕도였던 부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백제라는 국가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직접 돌아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무나 평범하고 막연해서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또 언제 무엇이 용출해서 우리를 저 아름다운 백제로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능사에 서면, 백제 중흥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명에 간 아버지 성왕을 위해 위덕왕이 태자의 신분으로 출가하고자 했던 당시 상황이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이외에도 공남지 서쪽의 낮은 구릉 위에 군수리사지가



창왕명사리감 출토모습과 사리감

있다. 중문·탑·금당·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는 1탑1금당식의 가람 형식이다. 이곳에서는 납석제(蠟石製) 여래좌상(보물 제329호)과 금동보살입상(보물 제330호) 등이 출토되었다.

백마강 건너에는 왕흥사지(王興寺址)가 있다. 왕흥사지는 규암면 신리에서 호암리에 이르는 길을 따라 왕안리 마을의 울성산성 남쪽 기슭에 있다. 이곳에서 왕흥사(王興寺)라는 명문 기와가 나왔는데, 법왕 2년(600)부터 짓기 시작해서 무왕 35년(634)에 완공한 백제의 국찰이다. 무왕은 이곳에서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염원했으며, 백제의 불국정토화를 위해 기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동남리사지는 그 동안 절터로 알려져 왔으나 회랑이 없는 데다가, 금당지는 동서 5칸, 남북 3칸의 장



군수리사지 전경과 출토 납석제불좌상



왕흥사지 발굴조사 모습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의 발전전략

방형 건물지로, 기둥자리는 특이하게도 방형 적심토를 이용하고 있다. 강당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출토 유물로는 납석제 불상, 금동불상편 등을 비롯해 삼족기, 고배, 개배, 자배기, 장경호 등 생활 유적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토기들이 나와 사찰지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부여를 방위했던 성곽들

왕조사회에서 왕은 곧 국가였다. 따라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왕이 거처하는 왕궁과 도

읍지 주위에 방어망을 겹겹으로 둘러쳤다. 이런 관방 유적 가운데 1차적으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나성이다. 방어 목적으로 왕도를 둘러 축성한 나성은 백마강과 접한 남쪽을 제외하고 부여읍 가탑리, 염창리, 석목리, 용정리, 능산리, 구교리, 동남리, 군수리 일대를 지나는데, 전체 길이가 약 8km에 달한다. 나성 안에는 부여 시가지와 금성산, 그리고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포함된다.

나성 이외에도 왕도의 동쪽 방비를 담당했던 산성으로 청마산성이 있다. 골짜기를 품은 산 능선을 따라 돌로 쌓은 포곡식산성이다. 전반적으로 성벽이 많이 무너져 있으나 서쪽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며, 방어를 목적으



| 나성의 성벽(동벽) 전경 |

| 성흥산성 성벽모습 |



로 쌓은 성이라 남문이 없다. 현재 성 안에는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높이 쌓은 망대와 각시우물이라고 전하는 우물터, 경룡사터, 의열사터와 건물터가 있다.

부소산에서 동쪽으로 약 500미터 지점에 위치한 높이 49미터의 낮은 구릉 위에는 청산성이 축조되어 있다. 테뫼식으로 토축한 청산성은 북벽에서 나성과 이어지며, 왕도의 북방을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금강으로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성으로 성흥산성이 있다. 성흥산성은 임천면 동쪽에 있는 성흥산 정상에 있으며, 둘레가 약 1,200m, 높이가 3~4m에 달하는 석축산성이다. 임천 지역은 원래 백제 가림군으

로 일명 가림성이라고도 했는데, 성흥산성이 바로 가림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상념을 느낄 수 있는 유적들

부여 시가지의 남쪽에 궁남지가 있다. 마래방죽이라고 부르던 늪지였으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궁남지로 추정하고 있다. 궁남지는 무왕이 축조한 연못인데,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왕조에 보면 '궁의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리에서 물을 끌어다 대었다. 연못 사방에 버드나무를 심고 수중에는 섬을 쌓아 방장선산에 견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현재의 연못은 1965~1967년에 원래 있던 자연 늪지의 1/3정도 규모로 복원한 것이다. 이 유적은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1990~1993, 1997년에 시굴 및 발굴 조사를 하면서 수전(水田)을 비롯해서 수로와 관계된 유적을 연못 안에서 확인했다. 또 이곳에서 백제 시대 목간과 새머리 모양의 조각을 비롯하여 토기, 수막새 등이 나왔다.

궁남지의 동편에는 화지산이 있는데, 이 지역은 궁남지와 연계하여 삼국사기 무왕조에 나오는 서동요 전설이



| 무왕의 체취가 전해지는 궁남지의 전경과 출토된 목간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의 발전전략

유래한 지역으로 이궁지(離宮址)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비 시대에 대외 교통의 관문 역할을 한 곳이 구드레 나루다. 구드레는 낙화암의 남쪽과 부소산 서쪽 기슭의 백마강을 중심으로 한 동네와 그 일대를 말한다. 이 명칭은 삼국유사 '남부여조'에 나오는 '구들돌'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견해와, '구들개'가 변해서 된 말이라는 견해가 있다. 구들개란 곳, 곧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백제를 내왕한 일본 배들은 구드레나루터로 들어와 사비 도성에 들어갔는데, 일본에서 백제를 '구다라'라고 부르는 것도 구드레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구체적인 유적은 없으나 대외 관계의 통로이며 경관이 빼어나 사직 및 명승 제 6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백제인들의 사후 세계를 보여주는 고분들

부여 시내에서 동쪽으로 벗어나면 능산리왕릉군이 나타난다. 도성 제도가 정비되면서 왕도 내에는 무덤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왕릉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동쪽 나성의 밖에 입지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고분은 모두 도굴되어 이렇다할 유물이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무덤의 주인공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1호분에 사신도(四神圖)가 그려져 있는 점이 눈길을

▶ 사비시대 왕들의 무덤군인 능산리왕릉군 전경 ▶



▶ 능산리왕릉군 동하층의 사신도 가운데 백호(서) 모사도 ▶



끌고, '중하총(中下塚)'이 성왕의 무덤일 것이라고만 추정할 뿐이다. 이곳에 성왕의 능이 모셔져 있을 가능성은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창왕명사리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사리감에는 위덕왕의 누이동생이며 성왕의 딸인 형공주가 발원하여 만든 공양 사리임을 밝히는 명문이 있다.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았으나, 결국 진흥왕에게 다시 한강 하류 지역을 빼앗기자 복수하기 위해 신라와 전쟁을 하던 중 관산성(현 옥천지방)에서 죽음을 맞았다. 성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왕실의 충격이었으며, 백제의 팽창 정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왕을 위해 능사가 창건되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능안골 고분군과 염창리 고분군이 대규모의 고분군으로 확인되었다. 염창리 고분군은 도로를 내면 서, 또 능안골 고분군은 부여군이 종합체육시설을 조성

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발굴 조사 결과 고위 귀족이 사용하는 금동제 관모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부여 지역의 곳곳에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많은 유적들이 분포하는데, 이런 유적들이야말로 하나 하나 찾아낸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하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손길이 닿음으로써 낱알이 파헤쳐지는 것을 거부라도 하려는 듯이…….

백제인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백마강 주변)

부여하면 가장 먼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백마강이다. 백제의 흥망을 지켜본 백마강은 천오백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다. 한때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의 존재는 그 흔적만을 남긴 채 사라졌건만 무심한 백마강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 갈 길만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백마강은 많은 사연을 보듬어 안은 채 자신이 보고 겪은 것들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싶어한다.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이 바로 그



| 능산리고분 및 은화관식 |



| 조종대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의 발전전략



| 정암리가마터 |

것들이 아닐까. 소정방이 백마를 이용해 용을 낚았다는 조룡대를 비롯하여 자온대, 수북정, 낙화암, 무왕이 신하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대왕포(大王浦) 등 백마강을 둘러싸고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백제에 대한 호기심과 아련한 연민을 느끼게 한다. 이들 외에도 당시 기록에서 누락됐거나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었던 은밀한 이야기들은 설화와 전설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

금강과 지천이 만나는 지점의 강기슭 바위의 정상부에 천정대(天政臺)로 전해지는 정사암(政事岩)이 있다. 나라에서 재상을 뽑을 적에 후보자 3~4명의 명단을 적어 함 봉한 후 이곳 바위에 두었다가 열어보면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재상으로 임명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시가지 남쪽 백마강변에 위치한 정암리 가마터는 기와와 토기 등을 생산했던 시설로 당시의 산업 체계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 유적들만을 통해서 백제인의 체취를 느끼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럴 경우 금성산 기슭에 있는 부여 박물관에서 백제 유물을 접하게 된다면 아쉬움과

미진함은 다분히 해소될 수 있다. 백제인들이 사용했던 각종 생활용기와 금은 세공품,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불상들 같은 유물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백제인들의 온화하면서도 세련된 기풍을 느낄 수 있다.

부여박물관에서 단연 돋보이는 유물은 금동대향로이다. 1993년 능산리사지의 공방지(工房址)에서 출토된 금동대향로는 커다란 용 한 마리가 갓 피어나는 연꽃봉우리 모양의 몸통을 받들고 있고, 그 꼭대기에 봉황 한 마



| 금동대향로 |



| 외리출토 문양전 |

리가 날개를 펴고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향로 전체에는 신선으로 보이는 인물 18인, 동물 65마리가 조각되어 있다. 그리고 1995년에 목탑지에서 출토된 창왕명석조사리감도 볼 수 있다. 또한 규암면 외리 유적에서 출토된 8종류의 문양전은 백제 건축과 회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국보 83호인 금동반가사유상을 비롯한 많은 불상들은 '백제의 미소'로 불리우듯이 복스러운 얼굴에 고졸한 미소와 온화하고 세련된 조형성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많은 금속 공예품을 비롯해 토기, 기와 등은 백제인의 의식세계와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부여 지역 백제 문화재의 의미

이제 백제는 없다. 그렇지만 백제가 남긴 역사와 문화는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되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부여 지역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백제인의 의식 세계와 생활 모습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상상할 수 있다.

기록과 책, 사진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만 알 수 없었던 백제의 실체를 이곳에서는 막연하고 모호하지만 심정적으로나마 그 실마리가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멸망해 간 백제와 왕도였던 부여를 돌아보면서 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과 귀족들은 불과 몇 평밖에 안 되는 지하에 그 흔적들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며, 이들이 살았던 화려한 궁전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온갖 부귀영화와 난마처럼 얹혔던 정치 상황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두 잊혀지고 지금은 다만 보통 사람들의 바쁜 일상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재도 부여에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어 성숙된 백제 문화가 다시 부여에서 꽃피우기를 기대해 본다.



| 금동반가사유상 |